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와 관련하여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 나라의 항구 도시 □□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수중 생물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항구가 건설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최근에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부분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굴의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 도시의 해안가에는 원래 굴이 많이 서식했지만, 항구와 운하를 만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굴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웁니다. 이 장치의 부표 아래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양옆에 굴을 키우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굴들은 성장하면서 운하의 물을 정화합니다. 이 장치에서 어린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해안가 근처의 암초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작은 굴 구조체 덩어리가 형성되면 대규모 서식지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보기>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짚으며 ㉠이 만들어져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야겠어.
- ② ㉠을 짚으며 ㉠에 설치되는 굴 구조체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을 짚으며 ㉡이 조성되었을 때의 효과를 설명해야겠어.
- ④ ㉡을 짚으며 굴 서식지의 확대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어.
- ⑤ ㉢을 짚으며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을 설명해야겠어.

3.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은 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전 △△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 방안이 효과가 있겠어.
- 학생 2: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니, 정말이지 좋겠어.
- 학생 3: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하면, 수중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겠어.

[4~7]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날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학생 3: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학생 1, 3: 응, 그래.

학생 1: ㉢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학생 2: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3: 그게 좋겠다.

학생 3: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학생 1: ㉤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나)

[표제] 우리가 직접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들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한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한 메뉴로, 접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등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면담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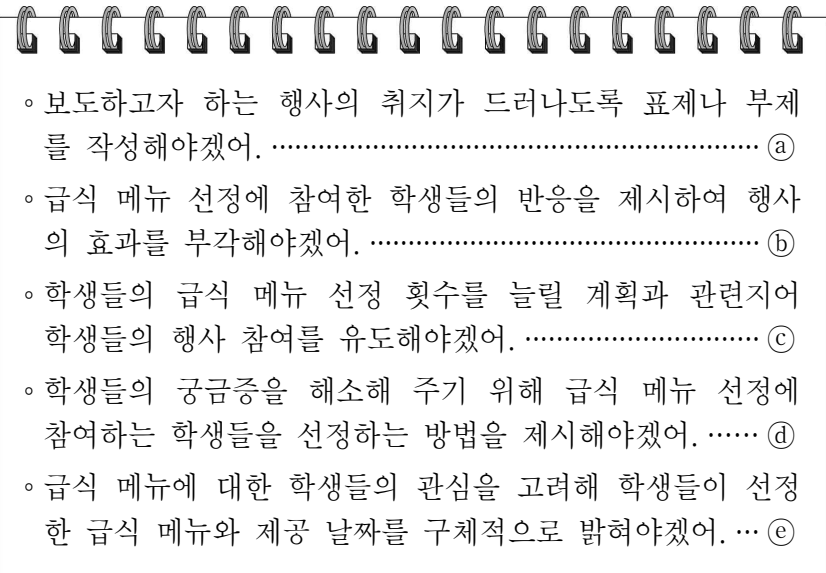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과정이 소개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학교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게

- ①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친숙하게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발화이다.

국어 영역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해야겠어. ㉠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되고 과정에서 나는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학생 1: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학생 2: 그래,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8 ~ 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글을 수집하고 (나)를 작성하였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한 글을 쓰는 글쓰기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사전 규제 방식과 관련이 없다.
-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있다.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 ㉠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이 더 작아지고, 사무실 등에서 비행이 가능해져 비행이 더 쉽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자들은 개인의 기본권이 드론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중략)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할 때 사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 학생의 초고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어 영역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뭇[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농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끊지[끝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12. [A]를 참조하여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늬’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늘히 믈스믈 뒤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늬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늘 섬기습듯 혀야 (하늘 섬기듯 하여)
- ㉣ 하늘토 뒤며 (하늘도 움직이며)
- ㉤ 하늘과 싸과를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과’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같은 음운 환경에 따라

1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히

< 보 기 >

-㉠-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 「어미」
㉠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났을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 ㉡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오’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예(○)	아니오(×)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는가?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에 ‘하얗게’를 붙여 사용할 수 있는가?	○	×

- ① ㉠ ② ㉢ ③ ㉣

국어 영역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 ② 조선은 교식 후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주도하에 통제 아래 역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알고자 역법을 마련했다.
- ⑤ 조선은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8.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신(臣)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 『세종실록』 권49

(나) (세종께서) “이 일의 요체는 북극출지의 고하(한양의 위도)를 정하는 데 있느니 먼저 간의를 만들어 올림이 좋겠다.”하시므로, ...(중략)...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북극출지 38도소를 정하니, 『원사(元史)』의 측정값과 부합하였으므로 마침내 구리를 녹여 부어 간의를 만들었다.
— 『세종실록』 권77

(다) 수시력과 통례의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을 더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하고, 『칠정산 내편』이라고 했다. ...(중략)... 수시력이나 통례법의 주야각은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

— < 보 기 > —

정묘년(1447년) 8월은 하지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였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령』의 후보법에 의하면 경삭이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9°였으며, 원지점 위치의 차는 약 4.99°였다.

- ①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는 원지점보다 낮았을 것이다.
- ② 정묘년 8월 경삭 후보에서 정묘년 8월 경삭 가령이 『교식 후보법』의 가령보다 낮았다.
- ③ 정묘년 8월 경삭 후보에서 두 가령의 차는 2.39°보다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④ 정묘년 8월 경삭 후보에서 두 가령의 차는 4.99°보다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⑤ 정묘년 8월 경삭 때 지구가 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20.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日食)의 원리를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 ② ㉡: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③ ㉢: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를 간주했다.
- ④ ㉣: ‘질차’는 음의 값을, ‘지차’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 ⑤ ㉤: 『교식 후보법 가령』의 가령을 고려한 것이다.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법적 절차를 ㉠ 거처야 룰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소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배당받는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부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 않은 것은?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

국어 영역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다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권유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업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것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실 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 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 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 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 아니라 은행 문을 돌진해 들어 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신 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 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앉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들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은 곳이죠. 안쪽 사람들은 그 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 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쫓자들 선에서 그 쫓자들을 지휘 목 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 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손 박사는 그레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여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줄거리]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껄스름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이 있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② ㉠은 ‘교묘’에 대한 윤일섭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에서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을 ㉠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완성하시라. [3점]

< 보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 윤일섭은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문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락해져서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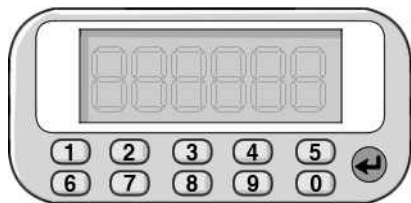
-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

국어 영역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초기 OTP 발생기>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촉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촉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촉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 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 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

-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 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 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
-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
-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것은?



3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술타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⑤ OTP 발생기의 질릿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33.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는 서로 다르겠군.
- ③ ㉡과 ㉢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술타값은 서로 다르겠군.
-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용왕 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
 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
 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운이 통곡 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
 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
 어 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
 리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
 니하리오. ㉣ 소소(昭昭)한 창천
 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
 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가련하고 애답을사, 유 부인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
 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
 립자나 있으리오.
 한참 이렇듯 힐난할 제, 선영과
 서, ‘바빠 배라.’ 재촉이 성화 같
 를 재촉하더라.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
 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
 사람이 나와 대답 왈,
 [가]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
 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원수가 차언을 듣고 양천 탄식
 “이 가운 길이가 만 리오 너

국어 영역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남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남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십시오.”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하십시오 부친을 뵈십시오.”

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땡굴며 통곡하니, ㉠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 남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심분 잉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무가내하(無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 없음.

3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것은? [3점]

< 보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 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 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 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 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
-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절로 늙어
공명부귀(功名富貴)를 뜻 밖에 잊었으니
 차중(此中)에 청유(淸幽)한 흥미(興味)를 혼자 좋아 하노라
 <제1수>

조그만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혼자 있어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 삼아 누웠으니
 세상(世上)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새
 조그만 초당(草堂)을 시내 위에 일워 두고
 목전(目前)에 보이는 송죽(松竹)아 **내 벗인가** 하노라
 <제4수>

산림(山林)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世上事)를 모르노라
 ㉠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물외(物外)에 뛰어난 몸이 보은(報恩)이 어려워라
 <제5수>
 - 이홍유, 「산민육가」 -

(나)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때** 좋
 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
 (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
 창울울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이 좋을씨고. 도화 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魚舟逐水
 愛三春)이어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중략)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활활, 수정렴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르르륵... (중략) ...

(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복하면서, 흡사히 동양화의 화폭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
 인다. ㉣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
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넌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그림 같은 연화담(蓮花潭) 수
 십 굽이의 석계(石階)와 목잔*과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삼백 단의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저
 제(一望無際)로 탁 트인다. 여기
 軍臺) —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有
 (戰時)에 할거(割據)하는 영웅들
 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仞斷崖), 무한제(無限際)로 뚝
 혈(鮮血)처럼 붉다. 우러러보는
 장(七寶丹粧) 같다면, 굽어보는
 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낮 붉힌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저물 무렵에 마하연(摩訶衍)의
 중에 사람이 귀해서였던가. 어서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

여장(旅裝)을 풀고 마하연사를
 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
 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삼십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A] 무한청산행옥진(無限靑山行)의
 백운심처노승다(白雲深處老僧多)

옛글 그대로다.

노독(路毒)을 풀 겸 식후에 비
 앉으니, 온고지정(溫故之情)이 불
 “산도든... (중략) ...

국어 영역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움직임의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9.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주위의 단풍과 물아일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 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

41.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 ①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 제시하고 있다.
- ②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 둘러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소망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
- ⑤ 마하연 여사에서 동행하는 사정 중에 발생한 일행 사이의 있다.

42. <보기>의 ㉡에 들어갈 대담의

< 보 기 >

선생님: [A]는 당나라 승려 영로 ‘한없는 청산 끝나 가을 노승도 많아라.’라는 의미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일 바라보니(停車坐愛楓林보다 더 붉네.(霜葉紅於二다가, 퇴고 과정에서 생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A]

[B]

[C]

[D]

4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칭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A] ~ [E]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보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
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
다. (나)는 ‘열무꽃’에 얽은 ‘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

- ① [A]: ‘강물소리’를 듣고 온 ‘구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찰랑찰랑’은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② [B]: ‘꿈틀’대는 ‘부끄러운 촉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③ [C]: ‘꽃잎 하나 바람 한 점’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화자가 ‘열무꽃’에 얽은 것과 연결되고 있군.
- ④ [D]: ‘망설’임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망설임으로, 화자가 ‘열무꽃’에 얽은 것과 연결되고 있군.
- ⑤ [E]: ‘내줄 곳’과 ‘내준 무를’은 ‘나’가 ‘열무꽃’에 얽은 것으로서, ‘살아오는 삶’에 대한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찰랑찰랑’에서 ‘출렁출렁’으로